

Economy Brief

금, 은 및 비트코인 동반 급락의 의미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금, 은 및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가격 동반 급락 배경: 1) 긴축 리스크, 2) 달러 강세, 3) 투기적 수요 급감, 4) 대형 AI 기업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 5)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쏠림 현상, 6) 중국 경제의 회복 지연
AI 과열론이 제기되는데 상황에서 금, 은 및 비트코인 가격마저 급락하는 현상이 자산시장의 시각 변동 우려를 자극할 수 있지만 유동성 축소 현상은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

하반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자산시장 모멘텀은 재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금, 은 및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가격 동반 급락

금, 은 및 비트코인 가격 등 주요 자산가격이 동반 급락했다. 24일 종가기준 금 가격은 전일대비 2.9% 하락하면서 온스당 4,000달러를 하회한 3,997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은 가격 역시 23일 전일대비 5.4% 하락한데 이어 24일에도 6.8%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23일과 24일 각각 전일대비 3.1%, 2.3% 하락했다.

주목되는 것이 이들 자산가격의 하락이 단기 급락현상이 아닌 추세적인 하락세라는 점이다. 한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금 가격의 경우 1월말 온스당 5,417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26% 급락했다. 은 가격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다. 1월 28일 온스당 11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은 가격은 6월 24일 종가기준 54% 폭락했다. 한때 디지털 금으로 각광을 받았던 비트코인 가격 역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장중 59,118달러에 거래되는 등 지난 202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 흐름을 보여주었다.

금, 은 및 비트코인 등 자산가격만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구리 및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역시 동반 하락 중이다. 유가의 경우 미국-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 중이다. WTI 가격은 전일대비 2.87달러(3.92%) 하락한 배럴당 70.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이란 전쟁 발발 하루 전인 지난 2월 27일(67.02달러) 이후 최저치이다.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이 아직까지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이번 주에만 유가는 6달러 넘게 하락하는 등 전쟁 전 유가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 중이다.

주요 자산가격 및 원자재 가격이 동반 하락 배경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축 우려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미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자산가격과 원자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욱이 지난 6월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음이 자산가격에 부담에 주고 있다.

둘째, 달러 강세다. 첫번째 이유와 연관성이 크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리스크 부각이 달러화 강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견조한 미국 경제와 달리 유로 경제가 또 다시 침체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유로화 약세 압력이 확대된 것도 달러 강세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 정국불안 및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세 현상이 강화된 것도 달러 강세 압력으로 높이고 있다. 이란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제외하고 주요국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것이 달러화 강세 그리고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투기적 수요 급감이다. 긴축 우려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금, 은 및 유가 랠리에 베팅했던 투기적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넷째, 대형 AI 기업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이다. 스페이스X 상장 및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자금조달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일부 자산시장을 떠나 미국 주요 AI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 역시 일부 자산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다섯째,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쏠림 현상이다. AI 투자 이외에는 투자가 부진한 것도 주식시장을 제외한 자산가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 지연이다. 연초만 하더라도 회복세가 가시화되던 중국 경기가 최근들어 회복세에 약화되고 있다. 수출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수 경기, 투자사이클이 부진하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국 고정투자 증가율로 5월 고정투자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1%의 부진을 기록했다. 중국 고정투자 부진이 금, 은 및 일부 원자재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격한 유동성 축소 리스크로 확대 해석할 단계는 아님

일부 자산가격의 하락을 보면서 그 동안 자산가격 랠리를 떠 받치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사는 급격한 유동성 축소 리스크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미 연준 등 일부 중앙은행의 긴축 리스크가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반기 긴축기조가 추세적 유지 내지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긴축리스크를 재차 촉발시킨 유가가 빠르게 하향 안정되고 있으며 일부 원자재 가격의 조정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간이 커졌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지난해 관세인상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하반기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당사가 강조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전환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의 긴축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점차 긴축 리스크가 완화내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관련 투자사이클이 양호하다는 점 역시 급격한 유동성 축소 우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AI 과열론이 제기된데 상황에서 금, 은 및 비트코인 가격마저 급락하는 현상이 자산시장의 시각 변동 우려를 자극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유동성 축소 현상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하반기 하반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모멘텀은 재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금 및 은 가격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비트코인 가격도 6만 달러를 위협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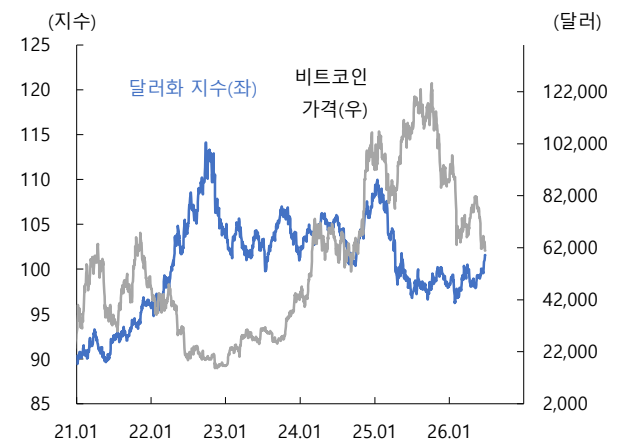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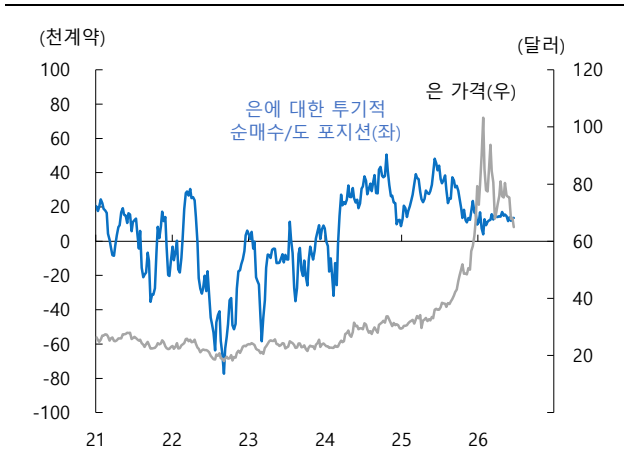


그림3. 은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진척으로 원유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규모도 더욱 줄어들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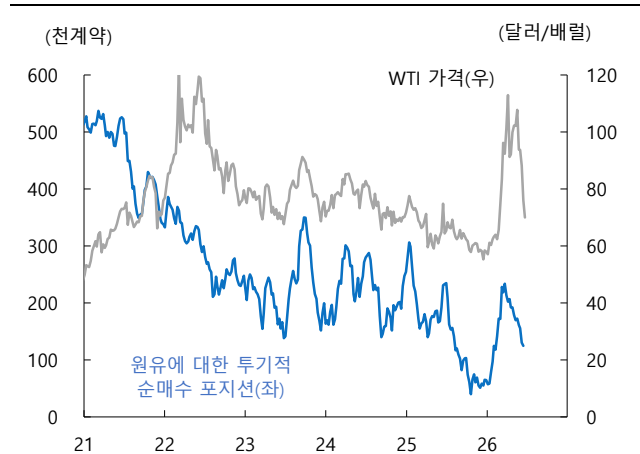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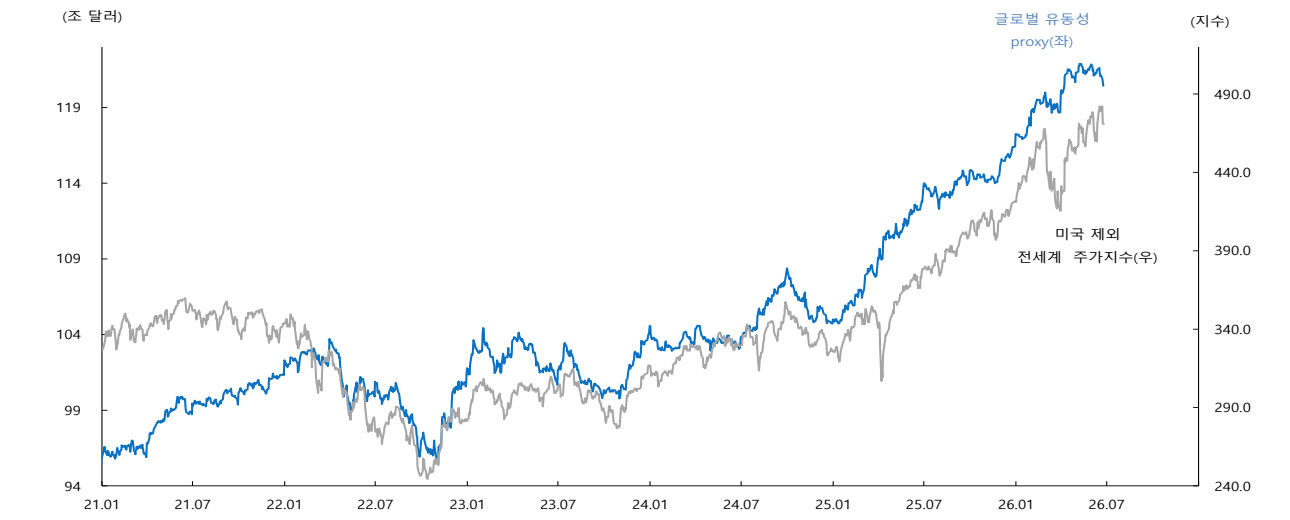


그림5. 미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강화로 글로벌 유동성 유동성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님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